



왼쪽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한 박용철 군수가 점검 상황을 살피고 있다.



## ‘계양~강화 고속도로’ 첫삽… 초지대교 일원등 상습정체 구간 해소 본격화

2032년 고속도 완공… 서울 접근시간 30분대로 대폭 줄여  
인천시내 방면 버스체계 개편도… 운행 증편·배차간격 단축  
서울역 지행 M버스 신설 추진… 올해 상반기내 성과 도출

수도권 서북단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이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광역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병행 추진으로, 관광·경주·출퇴근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교통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의 교통은 미래 성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도로와 대중교통을 함께 개선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관광·경주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일보>는 군의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서울까지 30분대”… 계양~강화 고속도로, 변화의 핵심축  
강화군 교통 혁신의 중심에는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있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과 강화군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완공 시 서울 접근 시간이 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3월12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개최

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29.9km 규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체 7개 공구(1~7공구) 가운데 강화군이 포함된 7공구가 가장 먼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군은 단순 관광지를 넘어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관광객 유입 확대는 물론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견인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 내부 도로망도 출중하… “막힘 없는 강화” 만든다  
외부 접근성 개선과 함께 내부 도로망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되는 선원면에서 내거면을 잇는 기존 군도 및 농촌도로가 ‘광역시도 60호선’으로 승격 지정됐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종점인 선원면 신정리에서 냉정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67km 구간은 양복 4차로 도로 건설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강화~서울역 M버스 유치 캠페인을 진행한 강화군 이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 예산에 반영되는 등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알미플 사거리 우회도로 신설과 초지대교 일원 상습 정체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되며 주요 병목구간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초지대교 일원은 출퇴근 시간과 주말 관광 시즌마다 반복되던 정체 구간으로, 차로 운영 개선과 교통체계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도로 확장을 넘어 강화군 전역의 이동 효율을 높이는

‘생활형 교통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대중교통도 대폭 개선… “차 없어도 편하게”  
자가용 중심의 교통 개선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인천 시내 방면 버스체계 개편이 확정되면서, 강화~인천공항터미널을 연결하는 기존 801번·800번 노선이 전면 개편되고 신규 직행노선이 신설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해 인천공항터미널로 가는 노선의 운행 대수가 기존 1대에서 4대로 확대되고, 배차간격도 4시간에서 약 55분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방면 대중교통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인 3000번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일일 운행 횟수를 확대했으며, 현재 서울역 직행 M버스 노선 신설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M버스가 신설될 경우 환승 없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가능해져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방근민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 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 공모 신청 시 제출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또한 강화를 연결하는 정철 신설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강화연결 정철 신설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향후 조지개를 통해 정철유치점을 비롯, 계양~강화고속도로, 영종~강화연륙교, M버스신설 등 강화의 교통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문조직 부서를 신설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관광 넘어 정주”… 교통이 바꾸는 강화의 미래  
강화군이 추진하는 교통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다. 접근성 개선은 관광객 증가와 생활 인구 확대, 경주 여건 개선, 수도권 출퇴근 가능한 지역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머무르는 관광”과 “살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교통 혁신은 강화군 미래 전략의 중심축으로 평가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ninilbo.co.kr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의회**